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54)

# 눈에 보이는 것 진리 아니다

어떤 수재(秀才: 서생)가 스님의 손 안에 있는 주장자를 보고 말했다.  
“부처님은 중생의 원(願)을 물리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렇다네.”  
수재가 말했다.  
“저는 화상의 손 안에 있는 주장자를 가지고 싶은데 얻을 수 있겠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군자는 남이 좋아하는 것을 빼앗지 않아.”  
수재가 말했다.  
“저는 군자가 아닙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노승도 또한 부처가 아닙세.”

찰을 보여준다. 그 중에서도 불생불멸(不生不滅), 불구부정(不垢不淨), 부증불감(不增不減)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단지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중생의 오관을 지적하는 동시에 참 진리적 측면을 설파한 것이다.  
진실은 생이 아니고 죽음이 아니며, 더럽지 않고 깨끗하지 않으며,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진리를 단순히 사람의 입장에서만 보는 것이 아닌 우주적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공평한 관찰이다.

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정의라 자처했고, 지켜지지 않을 때는 법으로 단죄했다. 그것이 진리든지 비진리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다수의 행복에 반한다면 다수는 소수를 단죄할 수 있다는 인간들만의 윤리이고,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받아들여야 하는 운명적 규범이다.

인간의 문화생활은 인간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측면이 강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인류의 문명이 인간을 결코 행복하게 하는 것일까에 대한 비판적 측면도 강하게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인류의 문화는 인간은 원래 문화인이 아니라 자연인이라는 평범한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 추종에서 오는 불합리한 규범은 사람을 비이성적으로 몰아갈 수 있다. 이에 부다는 범우주적인 관점을 설파하고 인간의 순수성을 강조한 것이다. 동시에 부다는 인간으로 살아가는 한 인류의 규범에도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이 바로 방대한 부다의 계율론이다.

## 진실은 생사·시비 여원 곳에 사람 아닌 우주적으로 봐야

우리는 진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깨끗할 필요가 없고 더러운 것을 싫어할 필요가 없을까? 그렇지 않다. 진실은 분명 불구부정이지만 인간이 만든 세계는 공평한 진리와 다른 인간의 꿈으로 이룩한 세계이다. 불구부정이 진리이지만, 인류는 자연이 인류에게 반드시 행복만 은혜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인류는 병혹한 자연을 극복하기 위해 인류의 문명을 창조해 냈다.  
문명이 낳은 문화생활은 인간의 규범을 만들어

한 마디로 부다는 인간중심적 사고를 벗어나서 범 우주적 진리를 깨닫고 인류의 규범도 받아들이는 것이다. 따라서 부다적 삶은 내면으로는 공평한 진리에 사무치는 것이고, 외면적으로는 현실적인 상황을 개척하면서 때로는 초연히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부다적 삶은 규범을 중시하면도 비규범적인 것도 받아들이는 삶이다. 그야말로 한 가지에 고정하지 않는 삶이다. 따라서 수행자는 철저히 지켜야 할 규범과 규범을 벗어나도 되는 것을 잘 가려서 나아가길 찾아야 한다.

무불선원 선원장

有秀才見師手中拄杖乃云 佛不奪衆生願是否  
師云 是  
秀才云 某甲就和尚乞取手中拄杖得否  
師云 君子不奪人所好  
秀才云 某甲不是君子  
師云 老僧亦不是佛

이 대답은 수행자들의 일상적 규범과 조주 화상의 재치를 보여준다. 선의 재치로 ‘남이 좋아하는 것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규범을 풀이하고 있다.  
초심자는 처음 입문해 진리를 접할 때 모순된 이문에 직면할 수 있다. 불교는 단순한 종교적 교리보다 우주의 근원과 원리에 대한 깊은 통

### 선어록 해제 34 한국선과 선어록 5

# 진각국사어록

이규보가 찬술한 <조계산제이세고단속사주지수 선사주증시진각국사비명병서>에 따르면 국사의 휘는 혜심(1178-1234)이고, 자는 영을이며, 스스로 무의자라고 불렀다. 속성은 최씨이고, 이름은 식(訖)인데 나주 화순현 사람이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보조국사를 참하고 26세 때 출가했다. 28세 때 심인을 전수받은 이후 둘째, 셋째 거두 심인을 인가받았다. 33세에 보조국사가 입적했다. 그 뒤를 이어 수선사 제2세가 되었다.

<구자부불성화간병론>에서 설한 10종병을 여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진각국사어록>은 현재까지 남아있는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선어록이라 말할 수 있다. 즉 기록상으로는 혜심 이전에 지눌에게도 <상당록>과 <범어(가승)>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현재까지 전하지 않고 있다. 다만 <보조국사법어>가 남겨져 있으나, 이는 지눌이 직접 서술한 저술들을 모은 것으로서 엄밀한 의미에서 어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진각국사의 어록은 순수한 어록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의 선가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것이다.

저서로는 <선문염송집>30권, <심요>1편, <조계진각국사어록>1권, <구자부불성화간병론>1편, <무의자시집> 2권, <금강경전>1권이 전하고 있고, <선문강요> 1권이 있었다 하나 전하지 않는다. <진각국사어록>에는 상당법어, 시중, 소참, 실중대기, 수대, 하화, 범어, 서담 등이 수록돼 있으며, 3종의 계승과 24종의 선화를 담고 있는 <진각국사어록보유> 등이 있다.

진각 국사의 어록도 다른 어록들과 마찬가지로 그 문인들이 엮어서 간행했겠지만, 현존본에는 그 집록자가 명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그 초간본이 언제 간행됐는지 알 수 없다. 현재 조선조 중종 21년(1526)의 간본이 전해지고 있다. 1528년의 대광산 용문사 간본이 있으나 이것은 앞쪽이 반쯤 없어진 결락본이다. 활자본으로는 1940년 보제사 간행본이 있다. 이 두 가지 간본에는 편차나 소재목 등에 있어서 다소의 차이가 있다.

<구자부불성화간병론>은 선문 화두의 대표격인 ‘구자부불성’ 화두를 참구하는 데 있어서 수도상의 병폐를 지적하고 있다. 화두의 심중병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무의자시집>은 혜심의 시를 모아 엮은 책이다. <선문염송>은 1226년(고종 13년) 겨울에 조계산 수선사에서 문인인 진훈 등과 함께 선문의 고화 1125칙과 이에 관한 모든 선사들의 염·송 등을 합해 30권으로 만든 책이다.

1526년 간본은 상당·시중·소참·실중대기·수대·하화·범어 및 진각국사서담의 순서로 되어 있고, 끝에 보유가 붙어 있다. 보제사 간본에는 상당·서장·시인·시중·소참·야참·실중대기·수대·하화의 순서로 구성돼 있으며, 활자판으로 간

## 간화 없이 무심할 수 없다는 혜심의 ‘진각국사어록’은 한국 最古 선어록

한국의 선종사에서 혜심의 공로 가운데 하나는 간화선을 확립한 것이다. 특히 간화선에서 기초가 되는 신심(信心)을 강조해 조사의 문을 연 것은 오직 신심에 있고, 따로 방편이 없다고 했다. 마음이 부처임을 믿는다는 것도 마음뿐만 아니라 온갖 존재가 그대로 하나의 통일진심을 굳게 믿은 연후에 화두를 들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또한 화두를 강조하면서 성적등지의 상태를 중시했다. 따라서 화두를 참구하고 있는 상태가 곧 망상을 떠난 상태이며, 망상을 떠난 상태가 그대로 성성적의 상태가 된다는 점에서 혜심의 성적등지와 간화일문은 더 이상 별개의 방편문이 아니다. 이것은 성적등지문과 간화경점문을 별개의 단계로 설정하고 있는 지눌의 경우와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혜심 간화선의 특색으로는 지눌의 삼중문에 있어서 최상근기를 위한 간화경점문으로서의 입장을 떠나 대중화된 간화일문을 일구어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지눌을 완전히 배격한 것이 아니라, 지눌의 삼중문을 간화일문에 잘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혜심이 간화선법을 일상화시킨 근저에는 곧 무심(無心)이 있었다. 혜심은 무심한 후에도 간화를 해야 하며, 또한 간화를 통하지 않고는 무심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혜심은 간화선 수행에 필요한 몇 가지 방안과 주의해야 할 점들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 실천도가 곧 실참실오이다. 실참실오를 위해서는

행하면서 앞 간본의 보유까지를 포함한 방대한 분량의 부록을 붙여 놓았다.  
이들 어록을 통해 보면 혜심은 대부분 가르침을 내림에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공안을 들어 이를 참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혜심은 이미 <선문염송>의 편찬 이전부터 공안을 적극 활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체계화가 요청됐다. <진각국사어록보유>에는 혜심이 즐겨 인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공안들이 집성돼 있다.

진각 국사의 어록은 그 내용이 대개의 경우 경전이나 조사어록 등의 문구를 끌어들이 합리적 이해의 문을 제시한 연후에 자신의 견해를 피력해 이를 보충설명하고, 나아가 결론적으로 공안을 제시해 이를 참구하도록 하는 것이 혜심 법문이 지니고 있는 특징이다.

이런 점에서 혜심의 사상은 간화일문(話語一門)으로 요약되는데, 이는 그의 스승인 지눌의 3종문 가르침에 기반을 두면서, 한걸음 더 나아가 간화참구를 보편화하고 있는 창조적 노력으로 간주된다.

김호국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 운상민의 서화산책 3 懶翁禪師詩 山居 (나옹선사시 산거)



청우거나한홍간전화간옥시산자  
우물시용 세수불월정이문불자  
산이정선 담천 침중인모명거  
인현해사 추산

## 산에 살고부터 산이 싫지 않나니

我自居山不厭山 柴門茅屋異人間 清風和月簷前拂 澗水穿胸洗臉寒(아자거산불염산 시문모옥이인간 정풍화월첨전불 간수천흥세담한)  
나는 산에 살고부터 산이 싫지 않나니 가시사립 띠폭집이 인간과 같지 않다 맑은 바람은 달과 어울려 추녀 곁을 스치는데 시냇물 가슴 꿰고 쓸개 씻어 차가와라 (서예가·동아미술상 수상 작가)



柴: 숲, 땀나무 또는 잡목 시  
簷: 처마 천  
澗: 산골짜기 물 간  
臉: 쓸개 담

# 대체의학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신화 같은 기적의 체험을 공개합니다

나 삼봉(三奉) 김영생(金永生) 승(僧)은 조부님 강요에 13세부터 육경신정신수련에 입신해서 81세가 된 오늘까지 병고없이 살다가 가는 길은 없을까 하는 일념으로 정신수련을 하면서 몸이 아파 몸부림치는 분 몸을 편히 해주고, 마음이 아파 몸부림 치는 분 마음을 달래주는 낙으로 사는 노승입니다. 저는 46세때 중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이면서도 1977년 음력 1월 15일 경신 수련중에 천신으로부터 천의선도를 전수받고 건강이 회복되어 오늘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때 천신의 메시지는 이 지구상에 인구가 70억이 될 때 원인모를 질병이 인명을 휩쓸고 갈 터인데 사람의 능력으로는 대책이 없으니 천의선도를 전수시켜 영능선사를 양성해서 천문을 열어주고 은(銀) 용해수를 육각수로 만들어 먹이면 병고에서 살아난다 하시며 은용해기 만드는 법까지 가르쳐 주셔서 많은 분들께 천의선도를 전수시키면서 두통환자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위하수 전립선이상자 요실금으로 불편해 하시는 분들께 1주일에 한번씩 3,4회 기를 넣어 주었더니 정상으로 회복되고 내장기능에 이상이 있어 사경을 헤매는 환자에게는 은용해수를 육각수로 만들어 100일씩 복용시켰더니 정상으로 회복되어 10년이 넘도록 건강하게 살고계신 암환자가 100여명이 넘는데 너무도 신기해서 나 혼자 흥분하면서 이것이 대체의학이야 라고 함성을 지르는 순간 천신의 메시지를 받았습니. 구제역 조류인플렌자 싸스병은 은용해수 농도를 조금 높여서 육각수로 만들어 뿌리고 먹이면 일순간에 소멸될 터인데 너무도 안타깝구나 하시기에 너무도 반가워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대례 3배를 올리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실에 전화하고 동물방역담당관실에 전화해서 실험해 봐달라고 호소도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실에도 전화하고 은이 650여종의 균이나 바이러스를 6분내에 살균된다는 세계 박사님들의 실험논문들 발췌해서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님 친전에 속달등기로 보냈는데도 전화 한통도 없습니다. 구제역 뉴스를 보면서 안타깝다 못해 분통이 터질것 같습니다. 이 노승은 30년간 체험해 봤습니다. 아무리 심한 독감에도 은용해수를 육각수로 만들어 서너잔 마

시고 나면 편안해지고 알려지 비염이나 축농증에는 1일 2회씩 코속에 몇일간만 넣어주면 편안해지고 아토피성 소양증에는 먹고 바로면 개운해지고 류마치성 관절염은 2달안에 거뜬해지고 세균성하리는 1잔만 먹고나면 멈추는 걸 수백명에게 체험해 봤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신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된다는 진단을 받은 환자가 손발이 터질듯이 부어있는 분에게 은용해수를 3일간 복용시켰더니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면서 부기가 빠지고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승이 이 세상에 알리고 싶은 대체의학입니다. 여러분 암은 균만 없어도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암을 진단 받으신 분들은 불안해 마시고 천의선도 수련을 하면서 은용해수를 당신이 직접 만들어 100일간만 드신 다음 제 진찰을 받아 보십시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안할 분이 한분도 없을것입니다. 사찰에서 부처님앞에 은용해기 1대면 놓아두면 불자님들 건강에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육각수를 만드는 비법은 천의선도를 전수받고 환신을 받은 분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은용해기 1대 가격은 35만원인데 200명이 1달 먹을 수 있는 은용해수를 만들 수 있으며 은봉만 같아 끼우면 무한정 쓸수 있습니다. 은이 유익하게 사용되는 사례와 세계박사님들의 입증내용을 보실려면 http://02-2216-6278kti114net 홈페이지를 보십시오.

천의선도 태종선사 삼봉 김영생 스님 합장 배례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489-1 천의선도 본원  
연락처 010-4933-4528

